

opusdei.org

# opusdei.org의 새로운 장을 함께 만들어주세요

지난 3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에서 기도하고, 읽고,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.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일지 모릅니다. 그렇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!

2026-4-8

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시면, 여러분의 목소리가 opusdei.org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.

설문조사 참여하기 · 4월 말까지 응답을 받습니다.

30년 전, opusdei.org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, 세상은 '마카레나'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, 알라니스 모리셋은 '아이러닉'을 부르며, 로라 파우시니는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. 극장에서는 첫 번째 '미션 임파서블'과 함께 '파고', '스페이스 잼'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. 스포티파이는 존재하지 않았고, 유튜브, 위키피디아, 소셜 미디어도 없었습니다.

오늘날 우리는 말 그대로 손끝만으로도 수백만 곡의 노래를 즐길 수 있고, 우리와 함께 배우는 AI 비서가 있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. 30년이 지난 지금, 성 호세마리아가 말했듯이, "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나, 여전히

히 해야 할 모든 것이 남아 있습니다.”

‘일(Work)’의 창립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, 저희는 이 웹사이트가 방문자 여러분께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따뜻하게 맞이하고, 유용하며, 세상의 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삶에 필요한 것에 귀를 기울이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

그리고 모든 가족과 마찬가지로,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내립니다.

의자를 하나 끌어다 앉으세요

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. 커피나 차 한 잔을 마시는 데 걸리는 5분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. 때로는 부정적인 뉴스만 훑어보며 허비해 버리는 그 시간을, 정말 중요한 일에 써 보세요.

무엇이 도움이 되시나요?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?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? 여러분의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며, 이 공간이 만들어가는 과정의 생생한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.

더 많은 목소리를 들을수록, 우리는 교회와 '워크'에 더 잘 봉사할 수 있습니다.

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실래요?

4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.

....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 
from <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opusdei-orgyi-saeroun-jangeul-hamggemandeuleo-juseyo/> (2026-4-8)